

영규대사와 800의승을 아십니까?

역사속에 묻힌 업적 재조명 활발

임진왜란 당시 의승과 의병들을 규합해 왜군으로부터 청주성을 탈환했던 의승장 기허당 영규 대사(?-1592) 열반일인 9월 14일(음 8월 18일)을 맞아 추모제 및 재조명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지해)는 최근 임진왜란 당시 사망한 승군 800명, 의병 700명 등 1500명을 추모하는 순국충혼 위령탑 건립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은 3월 28일 "정부는 국가와 민족의 이념으로 순국충혼 위령탑을 건립하고, 영정을 모시는 사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국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순국충혼 위령탑이 건립될 경우 영규대사와 칠백의승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직전 영규 대사가 증견했으며 승군훈련사찰이었던 충북 옥천 가산사주지 지승는 9월 14일 영규 대사 서거일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종회, 위령탑 건립 국회청원
옥천 가산사 영정각 해체후 사당건립
표충사등 주요사찰 추모열기 가득

다. 이와 함께 가산사는 약 2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영규대사 순국충혼 위령탑 및 기념관, 전시관 건립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산사는 영규 대사 영정이 안치된 영정각(충북기념물 115호)과 산신각을 해체한뒤 가산사 인근에 영규 대사 사당과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규대사 출가사찰인 계룡산 감사주지 장곡사는 11월 2일 추모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감사 신행모임인 영규대사 보존 현창회도 전사자인 공주 계룡면 유평리

묘소에서 이달내로 제향을 올릴 계획이다. 옥천사암연합회도 이달에 옥천 관성회관에서 증봉종림제의 일환으로 영규대사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시게 되면서 호국사찰로 지정된 밀양 표충사주지 혜오는 10월 1일 표충서원에서 추계항사를 지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행장소개, 헌향, 헌공,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청주성탈환추모사업회(회장 이주원, 청주불교실업인회장은 9월 23일 공주 감사, 유평리 등 영규 대사 전직지 순례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업회는 6일 청주 중앙공원 전직비 앞에서 청주성 탈환 411주년 추모대제를 열고,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영규대사와 승병들의 뜻을 기렸다. 사업회는 부대행사로 사진전, 기념공연, 경로잔치 등을 개최했다.

청주·청원사암연합회는 9월6일 무심천체육공원에서 불타가수 정태준, 박은욱씨등을 초청, 영규 대사 청주성 탈환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계룡사 감사 보좌각에 모셔져 있는 영규대사영정.

기허당 영규대사는?

기허당 영규대사는 조선시대 고승으로 속성은 박씨, 속명은 영규, 호는 기허당.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에서 태어난 영규대사는 공주 감사에서 서산대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대사는 감사 청운암에 주석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군 800명을 규합하여, 청주성을 탈환하는 등 공을 세웠으나 선조 25년(1592) 금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스님은 입적후 종2품 당상관 중추부사의 직위를 하사받았다.

스님의 영정은 해인사 영자전, 감사 보좌각, 표충사 표충서원, 보석사 의선각등에 모셔져 있다. 보석사에는 또 기허당 영규대사의 충혼을 기리는 위병승장비가 세워져 있다.

서산대사 제자로 출가

승군 800명과 청주성 탈환

임란시 승병부대 첫 지휘

금산성 전투서 맹렬히 전사

승유역불정책에 공적 묻혀

역사에 묻혀온 영규대사와 800의승은?

영규대사와 800 승병의 이야기가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2000년, 계룡산 감사주지 장곡사가 기허당 영규대사 열반이후 처음으로 대제를 지내고, 학술회의를 열면서 부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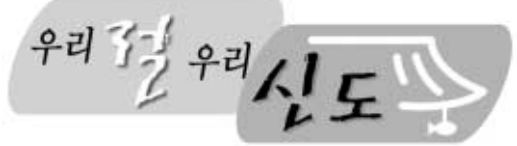


1592년 8월1일 영규대사와 800승병들이 조현의 700의 병과 청주성을 탈환하는 모습.

임진왜란당시 승병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영규스님의 부대가 최초이다. 또 임진왜란시 조선군이 일본군을 이긴것도 처음이다. 영규대사를 비롯한 승병 8백여명은 의병장 조현의 700의병과 함께 일본군이 차지한 청주성을 공격했다. 이후 금산성으로 진격했다. 이 과정에서 영규대사는 중과부적임을 알고 조현에게 전라 감사 권율에게 편지를 보내 1592년 8월 17일 금산성 공격을 결정하였음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할 것을 말했다. 그러나 조현은 권율의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또 영규대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산성을 선봉리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조현이 들뜬판에 결전장소로 결정하자 영규대사는 병법에 맞지 않는 곳이니 산등성이로 옮기자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현은 속내로 자신이 순절하면 이곳이 사당을 지을 명당터라고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 한다.

조현이 적군의 칼날에 쓰러지자 휘하 장수가 영규대사에게 후퇴를 권유하였으나 뿌리치고 분전하다 전사했다.

그러나 스님을 천대했던 조선왕조의 승유역불정책으로 인해 영규대사와 800명의 의승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스님들의 공적은 거의 묻혀져 왔다. 조현과 700 의사를 모신 금산의 700의승은 존재하지만 영규대사와 800 의승의 사당은 없다.



“지장선원 더욱 번듯하길...”

안양 지장선원 심정구·이필상 거사



이필상 고문(사진 왼쪽)과 심정구 회장(오른쪽)이 지장선원 법당에서 담소를 나누며 활짝 웃고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위치한 지장선원(주지 현호)에 들어선 순간 눈에 띈 것은 선물용 식용유 세트. 추석이 가까워 신도들이 주지 스님에게 전달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기엔 양이 많아 보였다. 궁금증이 일어 주지 스님에게 물어보니 추석맞이 신도용 선물세트란다. 추석을 맞아 신도들에게 선물을 주는 도심포교당, 그곳이 바로 지장선원이다.

140여명 규모에 월간 <지장>을 발행하고 불교대학인 안양불교대학과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한국포교원을 운영하는 지장선원이

한달에 두 번 씩 무진장 스님이나 이기영 교수 등을 초청해 법문과 교리 강좌를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주하면서 지도해 줄 스님이 필요했다. 우연한 기회에 현 주지 스님과 인연이 닿은 심 회장과 이 고문은 스님이 지도법사로 와 줄 것을 요청, 주지 스님이 이를 허락하면서 현재의 지장선원이 생겼다.

지장선원이 처음 열렸을 때 심 회장과 이 고문은 선원 문을 열자마자 신발장부터 눈에 겨봤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회에 참석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

안양불교 발전위해 자비들여 회관마련

짧은꼴 인생, 마지막 회향 목표도 같아

이 정도 발전한 것에는, 안양불교의 두 큰 봉우리 심정구 신도회장(79, 살봉)과 이필상 신도회 고문(79, 고봉)의 역할이 컸다.

축협·농협 지회장 등을 역임한 심 회장과 안양경찰서에서 재직하던 이 고문이 안양불교 발전을 위해 안양불교회관 마련을 발의한 것은 1985년. 일출암으로 알게 된 안양시 불자 16명과 1985년 5월 20일 안양시 안양1동에 45평 규모의 4층 건물을 임대했다. 법문을 듣고 싶어도 공간 마련 등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자비를 각출한 것이다.

심과 노력이 모여 현재의 지장선원이 된 것이다.

25년생 동갑인 심 회장과 이 고문은 함께 안양불교회관을 설립했을 뿐 아니라 안양불교대학 1기 동기생이자 각각 승려에 1남 5녀를 뒀다. 이 외에도 공통점이 많은 심 회장과 이 고문은 생의 마지막 회향 목표도 같다.

“지장선원을 지금보다 더욱 번듯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남동우 기자



추천의 말

현호스님 지장선원 주지

심 회장과 이 고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활동 뿐 아니라 매일 법당을 참배하는 등 청년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발심 후 실천의 사표

불교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강의에 참석하고 각종 재일을 빠뜨리지 않는 심 회장과 이 고문은 지장선원의 역사입니다. 발심 후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불교 현실에서 심 회장과 이 고문은 말 많은 사표입니다.

저 효사는 「육임(六壬)」 지방 강의를 재개(再開)합니다

저는 금번 전국 여러 어른들의 요청에 따라 아래 지역에 육임학당을 직접 개설하고 매주 직강(直講)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각위(各位)께서는 이번 기회에 저와 육임 공부의 인연을 지어 활인천역(活人天役)에 큰 활용 되시기를 권하옵고,

저는 신명을 바쳐 실기(實技) 위주의 육임을 알려 드리므로써 단기간에 좋다는 육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육임은 모든 슬병에 앞서는 정확 기민한 오행술입니다. 우리 활인천역자가 인연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습득해 둘 필요가 있는 고등술법인 것입니다. 이번 저의 지방강의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오니 등록하십시오. 후회없는 3개월이 될 것입니다.

강의 일시 및 장소

- 육임학당 「광주속」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15일 시작 (중전의 「광주속」은 장소·지회장·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진주속」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23일 시작
- 육임학당 「부산속」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24일 시작
- 육임학당 「대구속」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2003년 9월 25일 시작 (중전의 「대구속」은 장소·지회장·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호사속」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현재 제 6기 진행중(10월 14일 금 - 제 7기 시작)
- 육임학회회원 지도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무료) 현재 정기 지도 강의중

■ 수강료는 3개월 150만원(호사육임강의록 상·하권 - 값 410,000원 - 교재로 드림)입니다. 본 강의록을 이미 구입하신 분은 수강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는 02-996-3335로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효사

신 간 안 내

「각일 각시 출생자 운명예언 비법」

- 태아(胎兒) 선택 분만吉日吉時 선정 -

우리가 선택 분만에 따른 길일 길시를 뽑게 될때 매우 지난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번 써 놓은 이 책을 사용하시면 60갑자 각 일과 각 시간에 따른 출생 길흉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한 눈에 살펴 길일 길시를 선정 할수 있고, 또 여러 날과 여러 시간을 순서적으로 잡아 줄 수 있게끔 해냈습니다. 이 책의 활용요령은 비디오와 CD에 담아 책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것을 보시면 인연따라 더욱 크게 활용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주기둥세우는 기초」, 「격복 용신잡는 원칙」, 「여자 성(性)능력 판단」 등이 실려있습니다.

- 값 74,000원

●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명란 도서출판 卜